



● 조앤 K. 롤링, 성인 도서상 수상 가능성 높여

베스트셀러 열풍을 이어가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의 성인 도서상 수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녀의 최신작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이 상금 5천 파운드의 WH 스미스 도서상 소설분야 후보명단에 오른 것. WH 스미스 대변인은 "본 도서상은 아동도서를 제외하지만 고립과 죽음에 대해 살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만은 성인도서로 간주, 도서상을 받을 조건이 된다"며 롤링의 수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WH 스미스 도서상의 후보명단은 문학전문가가 아닌 독자 2명과 유명인 1명이 작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소설부문 후보명단을 맡은 유명인은 영국의 탤런트 롭슨 그린. 그러나 수상도서 선정은 일반 독자들의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롤링은 《Dancer》의 작가 컬럼 맥켄, 《A Question of Blood》의 작가 이안 랜킨, 《Nobody True》의 작가 제임즈 허버트,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의 작가 마크 헤든과 경쟁하게 된다.

● 미국, e-book 기록적인 판매

미국 e-book 판매가 날개를 달았다. 비록 많은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2003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104만 부의 e-book이 판매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64퍼센트가 증가된 수치. Open eBook Forum(OeBF)은 처음으로 한 회계연도에 1백만 부 이상의 e-book을 판매했고, 3/4분기에만 37만 7,095부가 팔렸다고 전했다. 이러한 증가로 인해 판매액도 전년대비 37퍼센트 증가, 매출은 260만 달러에 달한다. OeBF가 발표한 이 수치는 프랭클린 전자출판사, 하퍼콜린즈, 휴튼 미플린, 맥그로 힐, 존 와일리 앤 선 등과 같은 30개의 e-book 제작사들, 소매상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03년 총 2,159종의 e-book이 제작된 것으로 집계됐다.

● 책 읽다 들켜라, 유럽 전역에서 독서 장려 캠페인 전개

2004년 4월, 유럽 전역에서 독서 장려 캠페인 'Get Caught Reading(책 읽다 들켜기)'이 시작된다. 'Get Caught Reading'은 미국출판협회가 지난 1999년 5월에 실시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캠페인. 미국의 영부인 로라 부시 여사에서부터 스파이더맨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명인사들이 참가했다. EU의 'Culture 2000'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행되는 유럽관 'Get Caught Reading'은 이탈리아 출판협회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유럽출판연맹의 다른 출판협회, 유럽서적상연맹, 그리스 국가도서관, 2004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안트베르펜, 폴란드도서 회의 등이 본 캠페인을 공동 주관하게 된다. 사업 총예산 30만 유로(4억 5천만 원)의 50퍼센트는 유럽위원회가 부담하게 된다. 본 캠페인은 일 년 간 전개될 예정.

● 프랑스, TV 도서광고 제한 철폐

최근 프랑스는 지난 30년 동안 금지되었던 TV 도서광고 제한을 철폐했다. 장 자크 아야공 프랑스 문화부장관은, "프랑스가 계속해서 '문화적 예외 exception culturelle'를 남용해 EU로부터 제재 경고를 받게 되었다"며 TV 도서광고를 허락한 배경을 밝혔다. 프랑스 출판협회는 현재 케이블과 위성채널의 도서광고만 동意的한 상태. 프랑스 출판협회 회장 세르지 에를 씨는 "이런 광고들이 지상파 채널로 확산된다면 다수의 소규모 출판사들의 연쇄부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프랑스 TV 도서광고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였다. 한편 첫 TV 도서광고로 전 영국 왕실 집사 폴 버럴의 다이애나 황태자비에 관한 도서 《Confidances royales》가 2004년 1월 1일 방송됐다.

● 덴마크, 도서정가제 2006년까지 연장 합의

덴마크 국회는 2001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를 2006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도서정가제 연장은 도서가격에 대한 통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EU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의미하는데, 덴마크 정부는 '도서정가제를 철폐하게 되면 출판산업과 문화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서정가제 연장을 고집했다. 한편 EU 공정거래위원회는 덴마크의 도서정가제를 검토, 2년 반 정도 관찰하기로 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고 2006년 여름 재평가하기로 했다. 현재의 도서정가제에 따라 출판사들은 도서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혹은 정가를 선택할 수 있다. 도서정가는 도서가 발행된 해와 그 다음 해에 적용된다.

● 문학교류 사업 돋보이는 아일랜드

아일랜드 문학교류회(Ireland Literature Exchange, ILE)는 수년 간 아일랜드 문학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해 왔으며 번역대상 언어의 폭을 더욱 많은 국가들로 확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독립적인 기구로, 현대 아일랜드 문학을 번역출판하려는 출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ILE는 38개 언어로 600여 종 이상의 도서번역을 지원했다. 2004년 봄에 개최되는 프라하 도서전에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문학이 중점적으로 조명받게 되는 등 동유럽 지역에서 ILE의 번역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ILE의 중요한 과제는 국제적인 저작권 및 라이선스 매니저들에게 아일랜드 작가들의 작품을 주목케 하는 것. 이를 위해 저작권 구입이 가능한 도서를 게재한 브로슈어 〈New books from Ireland〉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있다. 더블린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기구는 북아일랜드 예술 위원회, 문학교류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사책 검토 지시하며 본의 숨겨

역사 교과서 《러시아 국가 역사 : 20세기》 한 권의 돌출행위로 러시아의 역사 교과서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경찰국가를 운영하는 푸틴이 독재자인가'에 관해 토론케 한 위 책의 내용을 확인, 러시아 모든 역사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에 대해 2월 1일까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는데, 공식적인 이유로 세계 2차 대전 참전용사들의 불만을 들며 그 본의를 숨기고 있다. 일간지 코메르산트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그의 편지에서 "나는 위대한 애국적인 전쟁(세계 2차 대전)의 참전 용사들의 감정과 의견에 동의한다. 나는 가능한 빨리 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상황을 검토하여 줄 것을 명한다. 이 작업의 결과는 2월 1일까지 보고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미 약 2만 부가 학생들에게 배포된 《러시아 국가 역사 : 20세기》는 러시아 교육부에 의해 현재 배포금지된 상태. 《러시아 국가 역사 : 20세기》는 이고르 돌루츠키라는 역사 교사가 집필하였으며 푸틴의 권력 장악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학생들에게 저널리스트 유리 부르틴의 "푸틴의 개인적 권력과 권위주의적 독재"에 대한 의견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문승현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과장